

# “청년이 모이고 가족이 든든한 전북”

### 김관영 도지사 후보, AI 창업허브·공공돌봄 강화 담은 청년·여성·가족 정책 발표

‘도민 후보’를 자임하며 무소속으로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관영 후보가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여성·가족 정책을 핵심으로 한 ‘2·3호 7대 공약’을 발표하며 “청년이 모이고 가족이 든든한 전북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민선 9기 50조 원 투자유치와 대기업 15개 유치라는 성장 전략이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진정한 성공’이라며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지 않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여성과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생활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청년 7대 공약’을 통해 전북을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AI 창업허브’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AI·반도체·재생에너지 산업을 결합한 첨단 산업벨트를 구축하고, 현대차 9조 원 투자와 1조원 규모의 피지컬 AI 프로젝트를 결합 추진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대학과 특성화고, 폴리텍 등을 연계해 AI 인재 1만 명을 양성하고, 청년 AI CEO 1,000명과 창업기업 1,000개를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창업 단계별로 GPU·데이터·클라우드 인프를 지원하고, 전북 벤처펀드 2조 원과 연계한 ‘청년 AI 창업 전용 투자트랙’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이어 전국 청년과 글로벌



김관영 무소속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여성·가족 정책을 핵심으로 한 ‘2·3호 7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인재들이 전북으로 모여드는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AI 사관학교’ 운영과 ‘전북 AI 패스’ 도입 계획도 공개했다. 창업공간과 실증, 주거, 투자, 행정을 윈스톱으로 지원하고, 전북에 분사나 연구소를 둔 AI 기업에는 파격적인 성장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피지컬 AI, 스마트 팩토리, 로봇 바이오 등 미래산업 분야 직 무교육과 인턴십 확대를 통해 청년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유치 기업과 연계한 전북형 AI 퀵스타트 인력공급 체계를 구축해 기업과 청년 간 고용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주거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정착 패키지도 제시했다. 청년 월세 임대보증금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확대, ‘든든자산 더블업 프로젝트’ 등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년 문화거점인 ‘청년 꿈틀공간’을 조성해 지역 정착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이어 발표한 ‘여성·가족 7대 공약’을 통해 “청년들이 전북에서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북형 공공신후조리원을 확대해 산후조리비 부담을 줄이고, 난임 지원부터 출산·육아·신후유를 관리

까지 통합 지원하는 ‘맘케어 종합서비스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또 야간과 주말, 방학에도 이용 가능한 ‘전북형 365 돌봄센터’ 운영과 농촌형 이동 돌봄버스 도입, 긴급돌봄 비우체 지원 등을 통해 맞벌이 가정과 워킹맘의 돌봄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여성 인건 강화를 위한 정책도 함께 제시했다. 여성 1인 가구 대상 ‘주거안정 방문지킴이 사업’을 통해 방문시설 지원과 스마트 보안등 확대, 안심귀가 공공택시업 도입, 스토링·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안심 전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력단절 여성 지원을 위한 AI·디지털 재취업 교육과 공공기관 연계 ‘경력 복귀 인턴제’ 운영, 전분야 여성 창업 성장펀드 조성 등 여성 경제활동 지원책도 포함했다. 특히 김 후보는 “청년과 노인 정책 사이에서 소외된 4060 간세대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도청 내 전담팀 신설과 전북형 간병비 비우체 도입,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정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기퇴직 중장년층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공공 멘토·지문단 운영 계획’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새만금 피지컬 AI 시대를 선도할 최적의 기회와 땅”이라며 “대기업 유치라는 경제 성장의 성과가 청년 일자리와 여성 안전, 가족 복지로 이어지는 따뜻한 도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에서 시작해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반드시 증명해 보이자”며 “2·3호 7대 공약의 역사에 함께 해 주십시오”라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만호 기자

## “재생에너지·농생명·균형발전 등 김제·부안·군산서 실질 성과로”

### 민주 박지원 국회의원 후보, 지역별 핵심공약 발표



오는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군산·김제·부안을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후보가 김제·부안·군산 지역별 핵심 공약을 발표하며 “이재명 대통령 국정기조를 실현하는 전략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전북에는 다시 오기 힘든 100년의 기회가 열렸다”며 “재생에너지와 농생명, 피지컬AI, 수소산업, 비전 등 기본소득, 지역 균형발전 전을 김제·부안·군산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제는 첨단 농생명 산업 도시로, 부안은 수소·해양치유·관광 중심의 서해안 미래거점으로, 군산 대야·회현은 생활밀착형 정주도시로 발전시키겠다”며 “국회 차원의 예산 확보와 입법 지원, 정부 부처 협의를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제 지역 공약으로는 △지능형 농업로봇 첨단 과학기술단지 조성 △피지컬AI 기반 농생명 혁신생태계 구축 △글로벌 종자생명산업

중심도시 추진 △헬스산업 클러스터 조성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조사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구축 등을 제시했다.

부안은 수소·해양치유·관광·역사문화를 연계한 서해안 미래 성장축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부안형 수소 생태계 구축 △국가 해양치유 블루카본 정원 조성 △갯벌치유센터 신속 추진 △가력항 국가어항 개발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명소화 △백산성지 및 세계사민혁명의 전당 건립 △서해안철도 구축과 부안역 신철도 등이 포함됐다.

군산 대야·회현 지역에는 생활 인프라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을 중심으로 △대야·회현 철길숲 확장 △대야 역사·전통시장 연계 관광 개발 △회현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청암산 생태관광지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후보는 이와 함께 해상풍력과 영농형 태양광, 청정수소를 기반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RE100 산업단지 구축과 햇빛소득마을 확대, 농어촌기반소득 도입 등을 공약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김제·부안·군산을 대한민국 에너지·농생명 전환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정부·여당·전북 협력체제로 현대차 새만금 투자 조기 완료”

### 민주 이원택 도지사 후보 등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에 조기 가동 위한 건의서 전달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공천장을 받은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1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현대차의 새만금 9조원 투자 프로젝트가 조기에 완료돼 공장이 하루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김재준 군산시장 후보와 함께 익산역에서 김 장관을 만나 ‘현대차 9조 조기 완료 및 가동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하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9조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이 전북 땅에 실제로 녹아들어 도민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주무 부처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현대차 투자가 전북도민 삶을 바꾸는 체감 성장으로 이어질 때까지 맨 앞에서 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와 같은 당 김재준 군산시장 후보가 19일 익산역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현대차 9조 조기 완료 및 가동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새만금은 전북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현대차의 조기 투자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대차 투자 프로젝트는 이에

인했다.

김 총리는 “이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통해 새만금이 로봇·데이터센터·수소·태양광 등 첨단산업 전진 기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현대자동차는 지난 2월 27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을 계기로 새만금에 총 9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사업은 AI 데이터센터(538,000억 원), 로봇 제조·부품 클러스터(4,000억 원), 수전해 플랜트(1조 원), 태양광 발전(138,000억 원), AI 수소시티(4,000억 원) 조성 등이다.

이 후보는 “전북에는 지금 대통령의 확고한 지원 의지와 집권여당의 입법·예산 지원, 그리고 현장에서 실행력을 갖춘 민주당 지방정부가 함께 움직이는 강력한 협력 체계가 구축돼 있다”며 “정부·여당·전북의 윈윈 체계만이 새만금의 오랜 과제를 해결하고 전북의 미래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 9조원 투자가 도민 삶을 바꾸는 실질적 성장으로 이어질 때까지 워킹맘의 힘으로 전북의 시간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소속 후보자들이 1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전북정치, 진보·민주 양 날개로”

### 진보당 전북 후보들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소속 후보자들이 1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공식 출정을 선언하며 “진보와 민주 양 날개로 전북정치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전북도당(위원장 전권희)은 이날 회견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12·3 내란 사태 이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로,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를 바로 세우야 할 전환점”이라며 “기득권에 안주한 전북 정치가 지역의 고통과 소멸 위기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북 지역 광역의원 선거구의 무투표 당선 사태를 지적하며 “경쟁과 선택이 없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실종”이라며 민주당 중심의 일당독점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진보당은 그동안 추진해 온 은행 금리 인하운동과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 공공배달업 도입 운동 등을 언급하며 “주민 곁에서 실천하는 민생정치를 이어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진보도체·AI 첨단산업벨트 조성 △농림축산식품부·농협중앙회 전북이전 △청년 정주여건 개선 △새만금의 지속가능한 개발 △공공의료 및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을 담은 ‘전북대도약 5대 비전’도 발표했다.

진보당 전북도당 전권희 위원장은 “민주당 한쪽 날개만으로는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며 “진보당이 전북 제2당으로 도약해 건강한 경쟁과 견제의 지방정치를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권희 진보당 전북도당 위원장 인솔하에 강성희 전주시장 후보, 오은미 순창군수 후보 등 진보당 전북도당 소속 출마 후보자 전원과 당직자들이 참석해 지방선거 승리를 향한 결의를 다져 주무 받았다. /이만호 기자

## “시민 모두에게 따뜻한 체감형 복지 실현”

### 이학수 정읍시장 후보, 보건·복지분야 공약 발표

이학수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후보가 지역발전 정책공약 다섯 번째 순서로 보건·복지 분야 세부 공약을 발표하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따뜻한 복지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9일 정책 발표를 통해 “정읍 역시 저출생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세대별 불균형과 건강·복지 문제에 대한 시민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영유아부터 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 이주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시



민 삶을 더욱 든든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보건·복지 분야 공약은 △대상포진 등 무료 예방접종 확대 △경로당 식사비 지원 △임신축하금 지원 △차별 조기진단비 및 지원 대상 확대 △제형 당뇨병 지원 △출산비용 인유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외국인 건강증진 지원 확대 △사회적 교통약자 복지 확충 △정읍형 치유농업 건강돌봄 품 구축 △정읍형 다문화가족 통합지원 정책 등 총 10개 사업이다.

이 후보는 “복지는 단순 지원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라며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정읍을 만들기 위해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시민 1인당 120만원 민생지원금 최우선”

### 김민영 정읍시장 후보, ‘취임 즉시 최우선 지급’

김민영 조국혁신당 정읍시장 후보는 19일, 중동전선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과 고물가 장기화로 커진 시민들의 생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읍시민 1인당 120만원 민생지원금을 취임 즉시 최우선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금 정읍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실질 지원이라며, 민생지원금 지급을 취임 후 가장 먼저 추진할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정읍의 현실을 감안하면 민생지원금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밝혔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들은 손발 감소와 매출 하락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민들은 비료·사료·농약·시설자재 가격 상승에 유류비 부담까지 겹치며 영농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농업과 자영업의 비중이 큰 정읍에서는 민생지원금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를 함께 지키는 긴급 처방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소상공인이 버티야 골목상권이 살고, 골목이 버티야 정읍 경제가 버틴다”며 “정읍시민 1인당 120만원 민생지원금은 보여주듯 구호가 아니라 시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즉각적인 책임행진”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 민주 도당 선대위 특보단 “지방선거 승리 결집”

### 무투표 당선 예정 광역·기초의원 후보자들로 구성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윤준병) 선거대책위원회가 19일 도당 컨퍼런스룸에서 특보단 간담회를 열고 6.3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준병 총괄상임선대위원장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무투표 당선 예정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4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특보단 임명장을 받고 향후 활동 방향과 공직선거법 유의사항 등을 논의했으며, 이재명 정부 성공과

전북특별자치도 대도약, 도민 주권시대 실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윤준병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무투표 당선은 지역민의 신뢰와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며 “일침 정진으로 단결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미래를 책임지는 지방선거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선대위는 앞으로 조직 정비를 통해 선거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